

부산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!

-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-

□ 노무현의 부산비전

- 부산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
- 임기내 부산시민 1인당 소득을 2만불 수준으로

□ 추진전략

- 부산의 해양수산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는 물론 동북아의 해양수산 Hub로 육성
- 특히 항만물류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

□ 세부 추진내용

- 항만물류산업의 규모를 2008년까지(임기 내) 약 3배로 확대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
 - 항만물류산업 매출액을 19조원('00년) → 60조원('08년),
종사자수를 37,000명('00년) → 11만명('08년)
 - 이를 위해 항만시설 조기확충(2008년까지 부산신항 최소한 10선석 완공), 육상수송망(TSR, TCR, 도로 등)과의 연계, 항만공사(PA) 도입,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,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

- 부산북항, 감천항, 부산신항 및 배후지를 **물류자유지역(국제물류촉진지역)**으로 지정하여 지역내 국내·외 기업 유치

※ 물류자유지역(Free Logistics Zone)은 관세자유지역, 자유무역지역, 경제특구, 항만배후부지를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

○ 동북아 선박·해운 거래의 센터로 육성(매출액 8조원 규모)

- 선박의 건조, 수리, 매매, 급유 등 선박과 해운거래의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해운거래 시스템 구축 및 해양은행 설립
- 조선·기자재 산업의 육성(감천항 등에 조선산업단지 조성, 조선·기자재 지원센터 설치 등)
- 통과선박 제도의 지원·확대

○ 동북아 수산 유통·가공의 메카로 육성

- 감천항을 국제수산물류중심지로 육성(수산물 종합가공단지 조성, 수산물거래소 설치 등)

○ 국제 해양관광의 관문으로 육성

- 동삼동 매립지에 대형 유람선(크루즈선) 전용부두, 한국형 Sea World 등 대형 테마파크 건설

□ 투자재원('03~'07)

- 총 6조 3천억원 규모 (부산신항 4조 2,330억원 등)
- 재원조달 : 정부투자 기확정분 2조 7,130억원, 민·외자 유치

참고자료 1

○ 항만물류 200% 증가의 논리적 근거

- 항만시설 확충 및 TSR 등과의 수송연계에 따른 물류 증가 : 100%
- 물류자유지역 입주기업들로부터 창출되는 물류 증가 : 100%

○ 개인소득 2만불 달성의 논리적 근거

- 우선 항만물류산업이 부산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은 부가가치생산액 기준으로 볼 때 약 31%(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72%)
- 따라서 항만물류산업 규모 200% 증가는 약 62%(=200%×0.31)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를 발생
- 이는 현재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6,000불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, 경제성장률과 타 산업에 의한 효과를 포함할 경우 2만불 소득도 달성 가능

○ 물류자유지역(국제물류촉진지역)

- 해양수산부가 입법 추진중인 국제물류촉진법의 국제물류촉진지역과 동일한 개념
-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,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이 주요 지원업종이나, 물류자유지역은 물류업, 제조업, 금융업 등을 모두 지원하며 각종 세제혜택(구체적 내용은 미정)과 항만부지조성 비용지원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포함하게 됨

○ 물류자유지역의 역할을 담당할 실질적 부지

- 신선대 용당부지(연수원 이전 완료 후, 약 4만평), ODCY 부지(이전 추진, 7만7천평), 부산신항배후부지('08까지 22만평 완공, 우선 3선석 조기완공에 맞추어 2만5천평 개장가능)

참고자료 2

투 자 재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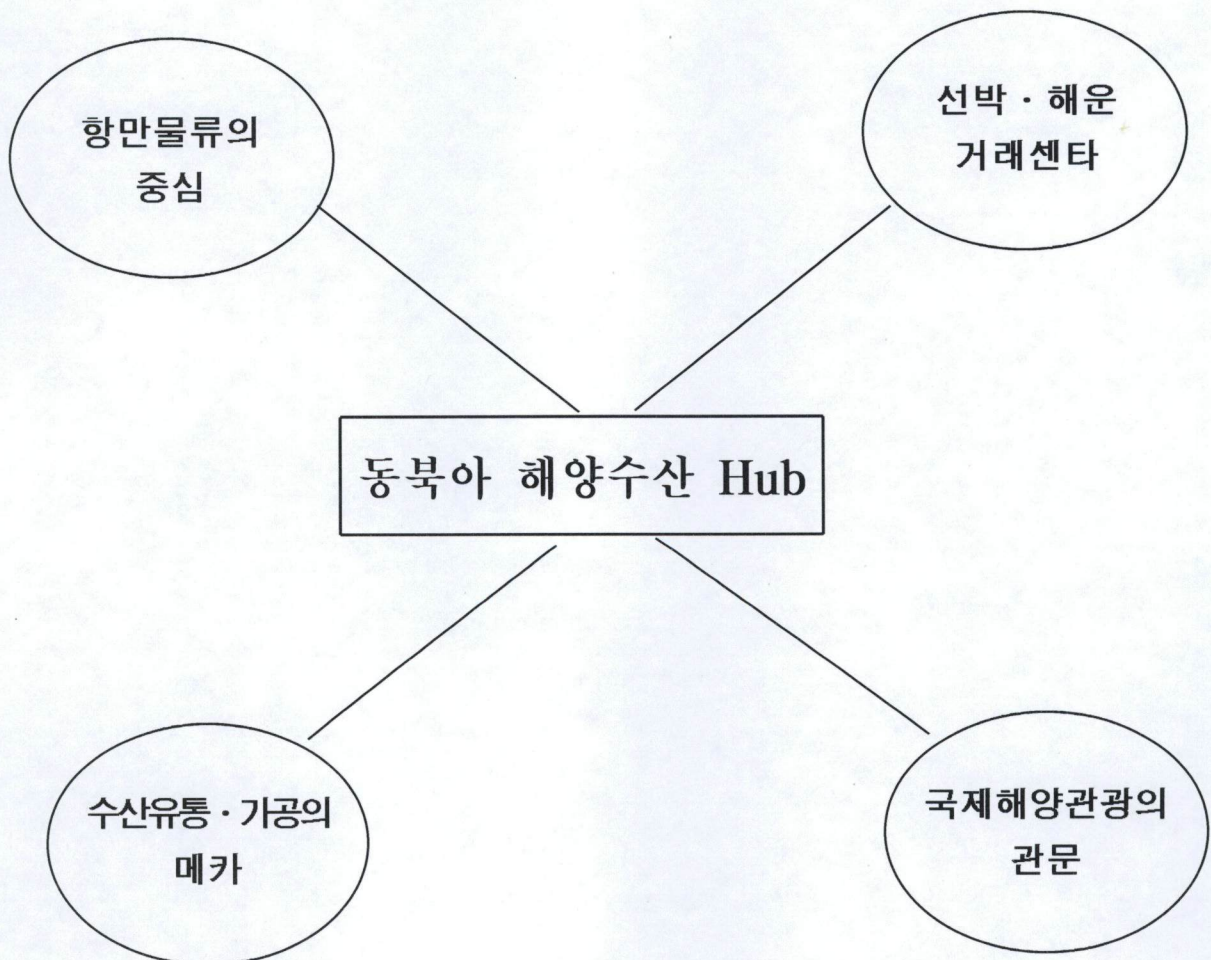
<2003 - 2007>

사 업 명	사업비 (억원)	비 고
합 계	63,029	
부산신항 합계	42,330	
정부투자 기 확정분	27,130	41,739억원의 65%를 기간중 투자
남“컨”부두 재정지원	6,942	부분민자방식 추진시
배후단지개발 재정지원	1,114	기반시설 지원
5선석 추가사업비	7,144	전액 재정으로 개발시
해양수산연수원 이전 및 기능대학 설립	1,153	
이전비	454	
운영비 지원	699	'03예산(90억)을 매년 20%씩 증액
부산 해사고	372	'03예산(50억)을 매년 20%씩 증액
중소 조선산업단지	2,352	
감천	1,539	
녹산	813	
감천항 수산물가공단지	766	총 사업비 2,270억원 중 잔여 투자분
수산물 거래소 설립	90	
크루스 전용부두 건설	966	
해양공원 건설	15,000	

부산을 동북아 물류의 거점으로!

□ 21세기 해양도시 부산의 비전

- 부산지역을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더욱 발전시키고,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해양수산 Hub 및 물류중심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한 단계 Upgrade 시킴(지역내 국민소득을 20,000불 수준으로 향상)
- 이를 위해 현 부산항과 부산신항을 물류의 중심으로, 조선·기자재 산업과 해운거래의 거점으로, 부산 감천항 등을 수산유통·가공산업의 근거지로 육성하고 해양관광의 관문으로 발전



□ 목 표

- 항만물류산업의 규모를 2008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
 - 항만물류산업 매출액 : 19조원('00년 기준) → 60조원('08년)
 - 항만물류 관련 사업체 : 1,700개('00) → 5,000개('08)
 - 항만물류산업 종사자 : 37,000명 규모('00) → 11만명('08)
- 선박의 건조, 수리, 매매, 용선, 금융, 선원공급, 화물집하 등 선박과 해운거래의 하나에서 열까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해양도시로 발전
 - 조선·기자재 산업의 생산액을 '96 대비(7,393억원) 10배 증액(7조 4,000억원 규모)
 - 통과선박을 대폭 유치하여('01 : 4,143척) 매출액을('01 : 2,293억원) 3배 이상(7,000억원 규모)
- 동북아시아 수산물류 및 상거래 중심지로 도약하고 국내적으로는 수산유통·가공산업을 기반으로 종합 식품가공산업기지로 위상 확보
 - 부산지역의 수산물 가공업 비중을 25% 수준에서 40% 이상으로 확대
- 부산을 국내외 해양관광의 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크루즈선박 전용부두를 건설하고 대규모 해양관련 공원(Theme Park)을 건립

이와 같은 해양수산 중심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 부산북항, 감천항 뿐만 아니라 부산신항과 그 배후지를 가칭 “물류자유지역 (Free Logistics Zone)”으로 지정

※ Free Logistics Zone은 관세자유지역, 자유무역지역, 경제특구, 항만배후부지를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

□ 추진전략

1. 항만물류중심화 전략

- 항만의 경쟁력은 시간(Time)과 비용(Cost)의 싸움이고, 이는 항만이용의 편의성(Convenience), 연계성(Connectivity) 및 비용 우위(Cost Benefit)의 3Cs에 의해 결정.
 - 부산항은 편의성과 연계성에서 홍콩, 싱가포르, 카오슝, 고베 등에 뒤지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분석됨. 즉 아직까지는 부산항이 낮은 항만이용료와 주요 해운항로에 위치해 있다는 지정학적 잇점에 근거하여 세계 3위의 항만으로 성장.
 - 이제는 항만시설 확충을 조기에 달성하고 하역뿐만 아니라 관련된 물류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“가격”이 아니라 “서비스”와 “질”로서 승부, 명실상부한 동북아 수퍼 중심항만(Super Hub Port)이 되어야 함
 - 이를 위해 부산신항에 대한 정부투자를 대폭 확충하고 (정부재정 총투자 4조 1,739억원 → 5조 6,939억원, 1조 5,200억원 증액), 항만배후단지를 가칭 “물류자유지역(Free Logistics Zone)”으로 지정하여 국내외 물류·금융기업들이 입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
- ※ 항만시설 조기확충을 위해 부산신항의 남“컨” 부두 건설에 재정을 지원(6,942억원)하여 부분민자방식으로 추진하고, 배후단지 기반시설(1,114억)에 대한 지원 및 5선석 추가 건설사업비를 재정에서 조달(7,144억원)하는 것을 전제

- 동북아 지역의 주요 항만·선사·물류기업을 잇는 **물류 네트워크**를 구성하여 환적화물을 적극 유치
 - 특히 남북철도 연결로 한반도횡단철도(TKR : Trans Korea Railway)가 건설되고 궁극적으로 TSR과 TCR과 연결되면, 부산항을 통해서 환적하는 중앙아시아, 만주지역의 화물(특히 미주지역과의 교역량)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항만운영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위해 **항만공사**를 조속히 도입, 정착시키고 항만운영을 **자동화·정보화**하여 항만관리·운영체제를 선진화
- 이러한 항만물류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항만물류 관련 **전문인력을 양성**
 - 전국적으로 10만 선원과 5만 항만운영 전문인력 양성(현재 선원 5만명, 항만인력 2만명 수준)을 목표로 부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
 - 이를 위해서 부산 해사고등학교, 한국해양대학교 등 해양수산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2년제 항만기능대학을 설립하여 항만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

<물류중심화 전략의 구조>

목 표

- 동북아시아 물류중심
- 부산항을 동북아 최대의 중심항만(Super Hub Port)으로 -



추진전략

- 부산항·부산신항 배후부지를 자유지역(Free Zone)으로 지정
- 항만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제고로 제값 받기



세부추진계획

- 항만시설 대폭 확충(현 부산항 정비, 부산신항 개발),
- 육상수송망(TSR, TCR 등 철도, 도로)과의 연계
- 항만운영 정보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,
- 전문인력 양성
- 투자재원 확보와 금융지원

2. 해운·선박거래 중심화 전략

- 철강, 화학 등 기초소재산업과 기계, 전자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후방 효과가 큰 조선·기자재 산업의 기술개발 및 기업 대형화로 **세계시장의 틈새(niche market)을 공략**
 - 부산은 울산·경남에 이어 국내 제2의 조선산업 중심지임. 대형조선소와의 생산 **전문화, 협업화 및 분업화**로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형성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.
 - 이를 위해 가칭 “조선·기자재 지원센터”를 설치(연구개발, 정보, 마케팅, 홍보지원 등)
 - 중소 조선산업단지 조성 : 감천항, 녹산공단 등
- 선박에 대한 유류·선용품 공급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**통과선박 유치 확대**
 - ※ “통과선박” 제도 도입으로 bunkering 으로 지역업체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·지원('01기준 1.9억불 매출액 발생)
- 선박을 매매, 용선하고 화물을 집하하는 등의 선박 및 해운거래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**해운거래 시스템** 구축 및 해양은행 설립
- 고급선원, 항만관리 매니저, 자동화된 터미널 운영요원, 해운·선박 거래 전문가, 마케팅 전문가 등 **해운·항만분야 인력 양성**에 집중 투자
 - ※ 고등학교(해사고), 대학교(해양대, 부경대), 전문대학원(해양수산연수원을 2년제 기능대학으로 확대), 등 각급 교육기관을 하나의 chain으로 잇는 교육체제 구축

3. 수산 유통·가공의 중심화

- 감천항에 대규모 수산물 종합가공단지 조성으로 동북아 국제수산물류중심지로 육성
 - 어선의 입·출항 및 하역의 편의를 도모하고, 수산물의 보관, 분류, 포장, 가공, 통관 등을 계열화함으로써 유통구조의 개선 추진
 - 원양어업업체 및 관련 유통·가공업체가 냉동·냉장창고와 가공시설을 공동활용함으로써 유통과정을 줄이고, 선진국 위생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
 - 국적 및 외국적 원양어선의 물동량과 환적화물이 증가하면서 동북아 수산물류중심기로서 역할 증대
- 수산물 유통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“수산물 거래소” 설치
 - 부산지역의 수산물 집하·유통·가공·금융기반을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의 수산물 국제거래를 선도
 - 감천항 수산물 종합단지안에 가칭 “한국국제수산물거래소”를 설립하여 수산물 현물거래 및 선물 거래 실시(지정창고 등 물류시설과 전자경매시스템 등 정보화 시설 필요)
 - 일차적으로는 참치, 명란, 김 등 등급화 및 국제거래의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품목을 상장하고 추후 점차 확대
 - 기대효과 : 부산지역경제의 생산유발효과는 년 1,408억원,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는 3,453억원 규모로 추정

4. 국제해양관광의 관문

○ 국제 크루즈선박을 유치하기 위한 전용부두 건설

- 국제항으로서의 부산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
- 부산 동삼동 매립지전면에 10만톤급 대형 유람선(크루즈선)이 접안할 수 있는 750m 규모의 전용부두 건설

※ 2006년까지 966억원 투자

○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한국형 **Sea World** 등 대형공원 (Theme Park) 건설

- 국제크루즈전용부두 및 해양박물관과 연계,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 동삼동 매립지 10만평을 활용하여 건설
-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(공원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)

※ 건설에 1조 5,000억원 ~ 2조원 소요 추정, 하루 평균 관람객 2만명, 연간 약 700만명 입장시 2억 8천만불(=3,360억원) 매출액 발생 전망

투 자 재 원

<2003 - 2007>

사 업 명	사업비(억원)	비 고
합 계	63,029	
부산신항 합계	42,330	
정부투자 기 확정분	27,130	정부투자분 41,739억원의 65%를 기간중 투자
남“컨”부두 재정지원	6,942	부분민자방식 추진시
배후단지개발 재정지원	1,114	기반시설 지원
5선석 추가사업비	7,144	전액 재정으로 개발시
해양수산연수원 이전 및 기능대학 설립	1,153	
이전비	454	
운영비 지원	699	‘03예산(90억)을 매년 20%씩 증액
부산 해사고	372	‘03예산(50억)을 매년 20%씩 증액
중소 조선산업단지	2,352	
감천	1,539	
녹산	813	
감천항 수산물가공단지	766	총 사업비 2,270억원 중 잔여 투자분
수산물 거래소 설립	90	
크루스 전용부두 건설	966	
해양공원 건설	15,000	

물류·무역관련 지원제도 비교

구 분	관세자유지역	자유무역지역	외국인전용공단	항만배후부지	경제특별구역	
근거법률 (소관부처)	국제물류지역육성을위한 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 영에관한법률(재경부)	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관한법률(산자부)	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(산자부)	항만법(해양수산부)	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 영등에관한법률(재경부)	가 (i
지정목적	국제적 물류축진을 통한 국제물류중심지 육성	국제무역 진흥 및 지역 개발 촉진	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촉진	항만물류 지원시설을 설치, 항만관련 산업활 동을 증진	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 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를 촉진	항 물 지 회
주요 지원 대상업종	물류업에 한정(하역· 보관, 조립, 단순가공) → 국내기업도 가능	제조업 위주 (물류업·무역업 등도 가능) → 국내기업도 가능	제조업과 고도기술수반 산업 → 외국기업 입주 한정	항만물류촉진시설 및 친수 시설	외국인 투자기업, 외국교육 기관	물 등
지정대상 지역	항만·공항, 유통단지, 화물터미널 등 국제물류 시설	산업단지, 공·항만 주변 지역	산업단지내 일정지역	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 구역	항만·공항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	항 안
세제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직접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천만불이상 외국투자 기업에 법인세등 7년 간 면제, 이후 3년간 50% 감면 ㉡ 간접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등록업체 대상 - 관세, 특소세 등 면제 - 부가세 영세율적용 ㉢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직접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천만불이상 투자 및 상 시고용 300명 외국투자 기업대상 - 관세자유지역과 동일 ㉡ 간접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가세영세율 적용규정이 없는 점에서 관세자유 지역과 차이 ㉢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천만불이상 투자 및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직접세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세는 7년간 면제, 3 년간 50% 감면 - 지방세는 15년간 면 제 ㉡ 간접세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세, 특소세, 부가세 등 3년간 면제 ㉢ 임대료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도기술수반 산업으 로 1백만불 이상투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현재 세제지원규정은 없음 ㉡ 배후단지 개발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 원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로, 철도,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세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특법·관세법·지방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감 면 가능 ※세부 지원사항은 미정 ㉡ 임대료 감면, 비용 지원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 대하는 부지조성, 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※ ㉠

경남산업의 발전축은 기계테크노 벨트로!

□ 노무현의 경남비전

- 경남산업의 발전축은 기계테크노 벨트로
- 양산~창원~마산~진주~사천의 벨트를 동쪽의 경북 포항과 울산 및 서쪽의 광양까지 확대하여 포항~울산~양산~창원~마산~진주~사천~광양으로 벨트화 추진
- 인프라확충과 기술력향상으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

□ 추진내용

(1)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

- 기계산업 정보화 기반구축
 - 종합정보(기술, 무역 등) 제공 및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기계정보지원센터 설립
- 산업용 소프트웨어 테크노센터 건립
 - 기계산업을 지식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지능형 공작기계, 공정 모의 시뮬레이터, 수송체 전자기기 등 산업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확산기반 구축
- 현장특화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

- 기계산업을 지식집약형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훈련된 석·박사급 현장기술인력 양성
 - 도내 4개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 참여하는 산학연추진위원회 구성
- 산업설비유통단지 조성사업
 - 유휴설비 유통체계의 선진화 기반구축으로 유휴설비의 효율적 활용 촉진

(2) 지식집약형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

- 벤처기업 창업 및 인프라 구축사업
 - 기계기술(H/W, S/W) 분야의 벤처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
 - 기계테크노벨트상의 대학과 연구소에 5개 창업보육시설 설치
-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
 - 신지식기계의 요소부품, 산업용 S/W분야의 세계 일류기술 개발을 통한 특화된 전문중소기업 육성
- 국제기계박람회 지원
 - 시장개척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, 수출중심의 다각적 판로 모색
- 기계류 해외마케팅 지원
 - 국내 기계류의 세계화를 위한 이미지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

○ 저비용·고효율 생산시스템 향상사업

- 중소기업의 노후시설을 혁신시설로 대체하여 저비용생산라인 구축과 고효율 생산시스템 구현
- 기계테크노벨트상의 개별기업 용자 지원

(3) 지식창출 및 환경기반 강화

○ 신지식기계 지역연구기반 구축

- 지역대학과 연구소에 지식집약형 기계기술의 연구개발, 시제품 생산 및 신뢰성 평가기반을 구축하여 테크노벨트상의 기계산업의 지식집약화, 고부가가치화 촉진

○ 신지식기계·설비기술개발

- 2005년 이후 세계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기계·설비 및 핵심시스템기술 개발

○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유치촉진사업

- 벤처기업, 기술집약형 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통한 연관 산업의 집적 효과 극대화

□ 기대효과

○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이행기반 마련

- 기술개발로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
- 거래비용 절감, 생산성 향상, 제품의 전문화·차별화 생산 및 글로벌 마케팅 조기 정착

○ 산업기반 강화 및 신규고용 창출

- 지역내 우수기술인력의 역외 유출 최소화
- 완제품 수출증대
- 내수위주 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
-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구축 및 원가절감 유도
-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상품 수급 증대

○ 경남 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유망업종 육성기반 구축

- 차세대 수출 주력상품군 확보
- 집적효과 극대화
- 수도권 소재 등 선진기업의 지방이전